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송년공연

생을 질편하게 살다온 축약된 무대언어
살려고 사는가 죽으려고 사는가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만희 · 작
장규호 · 연출

1997년 11월29일 ~ 30일
늦은 4시, 7시
속초문화회관
공연문의 31-8070

- 주관 ·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 주최 · 한국예총속초지부
- 협찬 · 학산교통, 문화토건, 4호 한일물산, **Rinnai** 가스기구전문 린나이코리아
- 후원 · 강원도



작가 · 이만희

인간이란 어차피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인생과 문학과 연극을 같다고 보았을 때 셋 다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요는 그 관념을 어떻게 재미나고 맛갈지게 안개뿔이로 장식하느냐가 작가가 할 일 일 게다.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있다.
 용서치 못할 배신을 한마디 너털웃음으로, 친구의 죽음을 영똥한 파안대소로, 장대비가 게릴라처럼 퍼붓는데도 평상에 앉아 꽃잎이 떨어짐을 아파하는 이가 있다.
 마을사람들은 물난리가 났다고 모두 대피하는데도 말이다.
 대사(大事)에 심각하지도 않고 소사(小事)에 신경질도 없다.
 그들이 노인이다.

어린애의 순수와 노인네의 순수는 어떻게 다를까?
 어린애의 순수가 본능과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면 노인네의 것은 질곡의 역사를 체험하고 뒀안길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세속의 껍질을 벗겨낸 순수일 게다.
 거기엔 그들 특유의 살아움직이는 것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과욕과 교만을 자기 탓으로 수용하며 순리에 따르려는 아름다움이 있다. 가는 손님 잠을 수도 없고 오는 손님 외면할 수도 없다.

평소 노인네들의 삶 자체가 곧 무대요 연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생을 절편하게 살아온 축약된 무대언어 같다는 생각에서이다.
 우리는 모두 늙는다. 생을 정리해야 한다. 한 번쯤 선악 대차대조표도 기록해봐야 할 것이다.
 젊은이로서 나의 미래를 추정해본다는 자세로 썼다. 노인들만이 가 질수 있는 순수한 정서를 담아보고 싶었다. 만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
 살려고 사는가 죽으려고 사는가.
 철학얘기를 노인동화처럼 써보고 싶었다.



연출 · 장규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연극을 보는 일반적 시각에서의 극예술가 고찰

지난 10월 공연때는 배우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번 공연에는 무대뒤에서 일한 보이지 않는 예술가 집단인 STAFF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했다. 스텝이라면 공연에 직접 관여하는 무대미술, 음향, 조명기사를 비롯하여 기획, 제작, 진행, 홍보 등 비창조부분의 참가자 전원을 호칭하지만 여기서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무대미술, 음향, 조명과 같이 공연현장에서 막이 내리는 순간까지 무대감독과 교감하는 예술가들을 얘기하고자 한다.

지난 공연때 얘기 했듯이 연극에서의 극예술가들이 하는 공동직업이란 다름아닌 감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극예술에 있어서 구체화되는 감정의 개념이라는 것이 배우의 언어나 몸짓에서 표출되긴 하지만 사실 배우의 모든 언어, 동작의 리듬과 고저등을 유지하는것이 바로 무대장치이며,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음향효과와 극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조명효과 때문인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야들이 결여 되어 있다면 그 연극은 미건조하거나 관객에게 어떤 정서적 충격효과를 전달하는데는 분명 실패하게 된다. 배우의 행동은 대사, 감정,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대효과란 배우의 행동을 둘러싼 장면설정, 대·소도구, 조명, 분장, 음향효과 그리고 음악과 같은 모든것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것은 모두 연극적 가상을 창조하기위해 사용된다. 무대위에 등장한 배우가 움직이거나 말하는 방법이 무엇을 뜻하며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것만큼이나 무대장치에 있어서도 무대의형태, 사용한재료, 위치크기, 세트등 채색한 색채등이 배우의 연기와 어떻게 일치될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 만큼이나 진지하고 피를 말리는 창조과정이 뒤따른다. 조명 역시 배우의 표정과 연극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정확한 극적 분위기를 표출하고자 노력한다.

일사불란! 아니, 널리 표현하자면 완벽 무비를 추구한다. 100명의 사람이 모여 어떤 지위자의 지시에 따라 박수를 친다고 하자! 몇번연습하면 100명이 동시에 "짝" 하고 단번에 소리를 낼수가 있다. 1초도 안되는 시간에 동시에 소리를 맞출수 있다. 그러나 연극은 상황이 다르다. 막이 열리는 순간 배우와 스텝은 0.01초를 다투는 정확도를 유지하기위해 긴장하며 1시간 이상을 그 0.01초의 오차와 싸우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삐끗하고 실수하면 그 연극은 관객에게 생명력을 상실하고 만다.

우리의 관객들은 우리 극예술가들의 완벽한 조화와 뛰어난 상상력속에 스스로 속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연극이 끝났을 때 힘찬 박수를 보내는 관객을 사실 완벽한 눈속임을 경탄하며 가상을 현실로 완벽하게 속여준 극예술가들을 칭찬하는 것이다. 관객은 한편의 연극속에서 왕이되기를 원하며, 천하를 호령하고자하며 완벽하게, 멋있게 죽는것도 꿈꾸고 있는 것이다.

0.01초의 실수로 관객의 꿈을 채워주지 못할때 우리의 관객은 분노한다. 따라서 배우와 스텝은 막이내리는 순간까지 긴장한다. 지휘자가 없어도 딱 맞아 떨어지는 정확도를 유지하기위해 —

차라리 처절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른다.

막이 내려야 그들은 처절의 사슬밖으로 풀려나 툭툭거리며 한잔술에, 한모금의 담배속에 그들의 운명을 달래본다. 그리고는 다음날 또다른 처절이 기다리는 극본을 받아들이기위해 꾸역꾸역하며 물려든다. 누가 박수를 쳐줄까? 우리 한국 연극계에서 스텝중 누군가가 꽃한송이 받았다는 기록을 아직 본적이 없다. 우리 속초는 분명 여타도시 보다는 앞선 문화예술의 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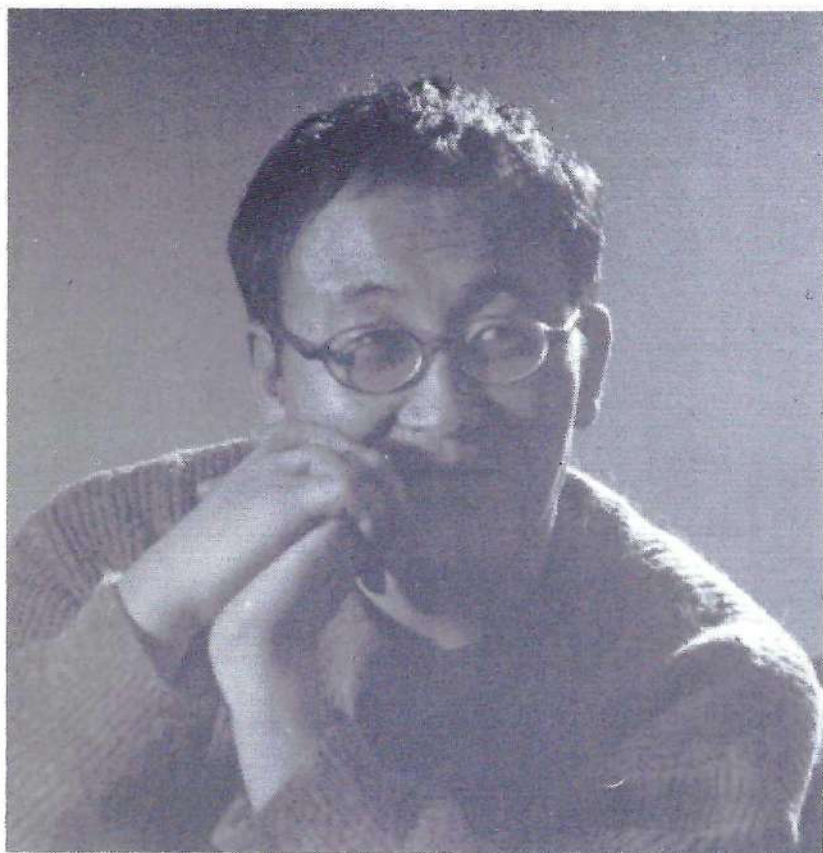
왕오 · 문일완

- 1971년 속초 生
- 부산예술전문대학 연극영화과卒
- 한남자 세여자, 호모세파라투스외 10편
- 현 극단 굴렁쇠 단원

천축 · 최문복

- 1967년 천안 生
- 천안공업전문대학 전자계산기공학 卒
- 1996년 강원도 연극제 연기상 수상
- 1996년 전국연극제 문체부장관상 수상작
참가
-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허탕외 20편
- 현 극단 굴렁쇠 단원





국전 · 김귀선

- 1963년 속초 生
- 서울 예술전문대학 연극과卒
- 1991·1995년 강원도 연극제 연기상 수상
- 1991년 전국연극제 연기상수상
- 번외의시간, 한씨연대기의 50편
- 현극단굴렁쇠 대표

난타 · 박영미

- 1959년 속초 生
- 동우전문대학 경영과卒
- 1989년 강원도 연극제 연기상 수상
- 1991년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작 참가
- 한씨연대기, 그날그날의 40편
- 현 연극협회속초지부 단원



소위 왕년에 사기, 절도, 밀수등으로 한가닥씩 했다는 왕오, 천축, 국전 세 노인이 산꼭대기 군부대 지하의 보물이야기를 듣고 도굴하기로 작정, 산아래에 위장 화원을 만들어 틈날때마다 굴을 파나가길 삼년을 계속한다. 보물을 찾아 해매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의 세명의 노인네들이 하나, 둘씩 펼쳐 놓는 질펀했던 삶의 굴곡들.

‘말’의 풍부함과 진실함을 알고 있는 작가 이만희는 세명의 늙은 도굴범들의 입을 통하여 따뜻하고 진솔한 휴머니티와 실존의 비극성을 표현하여 초연당시 극찬을 받은바 있다. 마치 어른을 위한 동화같이 노인들의 순진하고 순수함을 통해 관객을 울리고 웃기며 여유만만하게 인생을 되돌아 보게 하고 있는 걸작.

참으로 피고지고 피고지는 우리의 인생사.
더운 여름날 한줄기 소나기같은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속초문화예술인들은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산교통
빨간지붕 콜택시

대표 정 인 구

무료전화 : 080-345-8585
080-567-8282

문 화 토 건

대표 유 재 학

막 뒤의 사람들

제작 · 김병수



무대 · 박영근



음악 · 김명원



조명 · 윤종국



무대감독 · 정승균



진행 · 정경숙



기획 · 김인환



도와주신이

작곡가 안 훈

속초문화예술인들은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innai
For The Generations to Come



가스기구의 名家 —————
Rinnai 린나이코리아(주)

代表 / 東草代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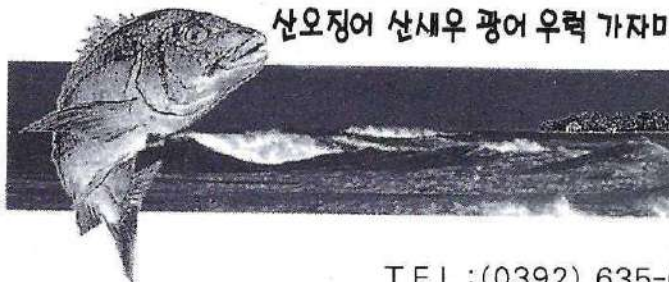
김 대 기

東草市 中央洞 472-1 (우) 217-030

電話 (0392) 636-1280 FAX: 32-6192

B.B: 015-800-6341 H.P: 011-375-6356

自宅 (0392) 32-6341



산오징어 산새우 광어 우럭 가자미 각종 일채

4호 한일물산
김 재 화

TEL: (0392) 635-6945(주)

(0392) 32-5451(야)

H.P: 011-369-5459

국민은행: 304-21-0151-446

수협: 260-62-006823